영광군 합계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다산 비결 주목

지난해 1.65명…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아
분야별 결혼·출산·양육 지원책 발굴 추진 성과

영광군이 2023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해 5년 연속 1위 자리를 굳히면서, 그 비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에서 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측정하는 통계를 말한다.

영광군은 전국적인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계출산율 1.65명을 기록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합계출산율 전국 평균은 0.72명이고, 전남이 0.97명인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이다.

영광군이 5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한 비결로는 분야별 지원 정책의 복합적인 상승 협력 작용을 꼽는다.

결혼·출산 지원을 적극 장려하고 청년 세대 지원과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광군은 그동안 다문화 가정과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세대 취업·창업지원과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와 함께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신생아 양육비 '첫째 500만원~여섯째 이상 최대 3500만원' 지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50여 개의 지원 사업 추진도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지역 선순환 인구 정착을 이끌었다.

여기에 전남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6년 상반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수준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가 준공되면 청년창업을 촉진 시키고 영유아 돌봄 공백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5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생동감 넘치는 영광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강종만(가운데) 영광군수가 군청 직원들과 함께 '합계출산율 5년 연속 1위 달성'을 축하하고 있다.

해남군 군민광장에 길이 65m 바닥분수 들어선다

기존 분수대 노후화에 시설 개선
조명·음악분수 등 친수공간 조성

해남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사업 조감도.

해남군이 청사 앞 군민광장을 바닥분수 등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해남 군민광장에는 지난 2002년 조성된 원형 분수대 등이 있으나 20여 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신청사 개청 이후 친수공간로서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군민친화형 열린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설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바닥분수 조성은 군민제안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는 숙원사업이다. 기존 분수대를 바닥형 분수로 리모델링 하고, 안전성을 개선해 군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친수형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특히 바닥분수는 조명과 음악이 분수 물줄기와 동시에 제어되는 최신 공법으로 조성된다.

또 물놀이는 물론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야간 볼거리를 제공해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즐겨 찾을 수 있는 힐링 명소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의 원형분수를 해남군화인 동백꽃을 모티브로 한 둥근모양의 바닥분수로 바꾸고, 아래쪽으로 물길이 이어진 선형분수도 바닥을 보강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는 한편 조명과 음악이 함께하는 총 65m 길이의 바닥분수를 조성하게 된다.

조성공사는 이달 착공해 오는 8월께 준공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바닥분수 조성으로 군민광장이 더욱 사랑받는 힐링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빠른 공사로 올 하반기에는 군민광장 바닥분수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군, 초·중·고 입학생 987명에 축하금

초등생 10만원·고교생 30만원

영암군이 올해 초·중·고 입학생 987명에게 축하금을 지원한다.

영암군은 초등학교 10만원, 중학교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을 지역화폐인 영암사랑카드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입학축하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군은 초등학생에게 주던 입학축하금을 중·고 학생까지 확대하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4일부터 22일까지 지급 신청을 받는다.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학생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시·군 학교에 입학한 뒤 영암으로 전학을 온 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 프랑스 기업과 업무협약…해양치유산업 협력

해양바이오·화장품 개발 교류도

완도군(군수 신우철·왼쪽 네 번째) 대표단이 최근 프랑스를 찾아 해양치유 전문 기업인 발디즈와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이 프랑스 해양치유 전문 기업과 손잡고 해양치유산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신우철 완도군수와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등이 지난 1일 프랑스 해양치유 전문 기업인 발디즈(Valdys) 로스코프 센터를 찾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발디즈 대표 이브 디아르 등이 참석했다.

프랑스 서북부에 있는 로스코프(Roscoff)는 1899년 세계 최초 해양치유 요법이 시작된 지역이다.

이날 완도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발디즈 기업은 1960년 두아르네즈에서 창설해 로스코프 해양치유시설을 시작으로 포르니셰, 생장드 몽츠 지역의 탈라소 테라피를 인수·확장해 나가는 전문 해양치유 기업이다.

발디즈 로스코프 리조트에서는 해조류 마사지, 해수 수중 자전거, 수중 체조, 해수 미스트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당일, 주, 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다.

완도군은 지난해 해조류를 활용한 화장품을 해외 5개국에 수출했다.

이번 기회로 프랑스 화장품 시장에 우리나라 해조류 소재를 소개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또 신 군수 등은 프랑스 유명 화장품 회사인 BCM과 피토메르를 방문했다.

BCM은 해조류를 원료로 화장품을 생산·제조하는 해양성 화장품 화장품 전문 회사이다. '탈리온'이라는 세계적 스파 브랜드를 갖고 있다.

피토메르는 1972년 설립된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품 브랜드이다. 해조류 육상 양식을 통해 자체 연구소에서 제품 개발 및 친환경 생산 기법을 통해 스파 전용 고급 해양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완도군은 이들 기업에 완도에서 개발된 화장품 10종과 해양치유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역 특화 자원 화장품 4종을 선보였다.

또 한국산 해조류를 활용하는 방안을 교류하자고 건의했다.

이어 완도 해양치유센터 내에 스포츠 재활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 노르망디 재활의학센터를 방문해 해수풀 등 재활 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노르망디 재활의학센터는 1911년에 지어진 고급 호텔을 1967년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활용한 재활센터로 활용해 운영 중인 근골격계·신경 병리 전문 센터이다.

주로 관절 환자와 뇌 질환 환자가 주를 이룬다. 통증 경감에 도움이 되는 해수와 해조류 분말을 활용한 관절 치료 전용 수영장이 있으며 지난해 4000명이 2만5000회 치료를 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프랑스 해양치유 전문기업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치유 프로그램 및 기술적 비법을 전수받아 국내 최초로 운영중인 완도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해외 전문기관과 해양바이오·화장품 개발 등의 협력으로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 암태도서 9~10일 이틀간 춘란 전시회

150여점 출품 대상·으뜸상 경합

제13회 1004섬 춘란 전시가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신안군 암태도 신안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전시장에는 신안 난 연합회 회원들이 정성으로 배양해 출품한 150여 점의 춘란(화예품)이 출품돼 대상(군수상)과 으뜸상 등을 놓고 경합을 펼친다.

전시회에서는 춘란 구매를 비롯해 천일염, 김, 젓갈류 등 다양한 신안 농수산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안지역은 해양성기후의 희귀 자생식물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매년 1004섬 춘란전시, 전국 새우란 대전, 전국 새우란 축제, 여름 새우란 전시, 대한민국 자생란 대전 등 다양한 자생식물 전시행사가 꾸준히 열리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천운소, 연등, 살구 등 전국 애란인들이 부러워하는 명품란의 자생지로서 다양한 자생란 전시행사를 통해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존하면서 일반인에게도 난 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해남군, 어항 다목적 인양기 보험료 전액 지원

해남군이 지역 모든 다목적 인양기에 대한 안전보험을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다목적 인양기는 어항에서 수산물을 인양하거나 양식업 등에 사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와 태풍에 대비해 어선을 인양하는 등 어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보험은 인양기 사용때 발생한 대인·대물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인양기 사용자의 상해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군은 올해 인양기 사용자로 등록된 어업인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양기 총 140대, 인양기 사용자 총 664명에 대해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어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양기 사고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토요민속여행 공연 프로그램.

진도군 '진도토요민속여행' 1000회 특별공연

16일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

진도군이 올해 28년째를 맞은 진도토요민속여행 1000회 특별공연을 '시작에서 영원한 빛'이라는 주제로 16일 개최한다.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진도 북놀이 합무와 타악 공연, 진도아리랑 단막극, 강강술래 등이 선보인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진도토요민속여행 공연은 1997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그동안 998번의 공연과 39만 4000여명의 관람객을 기록한 우리나라 대표적 전통 공연 프로그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토요민속여행은 대한민국 유일의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1000회 특별공연은 군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목포시 올해 71개동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29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

목포시가 올해 71개 동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 2억7000만원을 들여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을 추진한다.

목포시는 지난해까지 모두 15억원을 들여 680개 동의 주택·비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창고·축사이다.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할 때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일반 주택 최대 352만원이다.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우선지원 가구인 취약계층에는 동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지붕 개량비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우선 선정되며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차례대로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로 하면 된다.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